

화순군, 스마트 팜 농업분야 확대...미래 농업 집중 육성

축산·과수·특용작물 분야 스마트 팜 확대

현재 시설채소 중심 57ha 조성...전남 16.6%

화순군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전략 중 하나로 스마트 팜 확대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동안 화순군은 스마트 팜 66개소(57.4ha)를 지원, 시설채소 분야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한국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군은 수확량 증가, 소득 증대, 노동력 절감 등에 효과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팜 도입 면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 전남 스마트 팜 16.6%...시설채소 농가 집중 확대
실제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을 도

입한 대추 토마토 농가는 1000㎡당 수확량이 1만644kg으로 증가해 소득도 1451만 원으로 늘었다. 스마트 팜을 도입하지 않은 농가의 생산량(7902kg)보다 2742kg(35%)이 많았다. 도입 전과 비교해 온실 관리 시간은 1일 180분에서 90분으로 줄어 50%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봤다.

2020년 기준 전국 스마트 팜 운영 농가는 2493호(1396ha)로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 전남 지역은 전국 면적의 24.7%(396호, 344ha)를 차지하고 화순은 전남의 16.6%(66호, 57ha)다.

현재까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채소 작물을 중심으로 도입

해 도곡·청풍·능주면에 집중적으로 단지가 조성됐다.

최근 5년간 시설채소 농가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시범 사업', 'ICT 기반 병해충 예찰과 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3700만 원을 투입, 22농가를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소규모 단동 하우스 재배 농가의 스마트 농업 보급 위해 8농가, 35개동, 3.2ha에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 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개동 이상의 단동 하우스에 스마트 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 팜, 과수·특용작물로 확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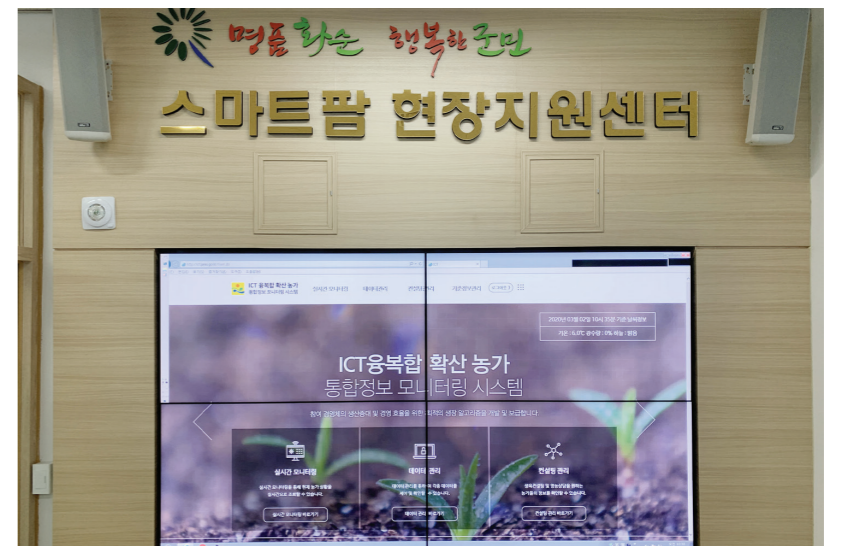
축산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3개 사업을 추진, 6개소에 1억 원을 지원

했다. 2017년에는 'ICT 융·복합 축사 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해 축사 난방비를 330㎡당 55만 원에서 32만5000원으로 약 40% 절감하고 폐사율은 6.3%에서 3%로, 질병 발생률은 17%에서 11%로 낮추는 등 농가 소득에 이바지했다.

화순군은 시설채소 스마트 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설채소에 집중된 스마트 팜을 과수, 특용작물, 축산 분야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과수 분야는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3000만 원을 들여 2개소(0.2ha)에 '작물 스트레스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 시스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5년 안에 노지 스마트 관개 시스템 보급 면적을 2ha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용작물 분야에서는 올해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 1개소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해 외부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균일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역할도 강화한다. 스마트 농업 시설이 구축된 농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작물 생육 데이터를 점검하고 분석해 영농 기술을 지원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전문농업인 양성 위한 '제14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사인마켓 과정 개설...26일까지 신청

담양군이 지역농산물의 명품화의 농업환경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제14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히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두각을 보이고 있는 사인마

켓의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 체계적인 재배기술, 유통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입학 희망자는 2월 26일까지 읍면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대학은 지역 특성에 맞

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진행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기에 걸쳐 86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품목별 연구모임, 추수 교육, 교육 피드백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대학은 최고의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 전문지식과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춘 농업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원기획담당(061-380-3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농업기술보급 사업 추진 시동

곡성군은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 4명과 관련공무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업기술보급위원회는 곡성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전남남도농업기술원 주관사업과 최신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군비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정부의 재정신속집행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하고, 금년 1~2월에 서류검

토와 현지심사를 추진했다. 심의 대상은 총 7개 분야 37건이었으며, 농업인단체 지원 등 농촌지원분야 사업과 비 자연순환 생명농업단지 조성 등 기술보급 분야 사업, 수해피해농가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김봉우 위원장은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복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가에게 사업 추진요령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길 바란다"며 기술보급사업 성과를 위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곡성=양해영 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모노무브 업무협약

나주 쪽 신제품 개발 협력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지난 17일 화장품·향수 제품 개발창업회사인 모노무브(대표 정다솜)와 업무협약을 맺고 나주 쪽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모노무브'는 서울시가 서울지역 청년의 창업·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도시 관광문화자원을 연계시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동지를 튼 창업회사다.

지난해에 나주 쪽을 재료로 만든 고체 샴푸를 개발, 출시하며 관련 업계



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재단과 모노무브는 협약을 통해 '나주 쪽·천연염색 신제품 개발 협력과 자문', '쪽·천연염색 관련 기술 및 연구 사업 협력', '양 기관 브랜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구례5일시장 157개 점포 노후전선 정비

구례군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례5일시장 노후전선 전면교체에 나섰다 22일 밝혔다.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에 2020년 3월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7천8백만원(국비 2억3천9백만원, 지방비 2억3천9백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오는 4월까지 구례5일시장 157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누전, 합선인 점

을 고려해 개별점포 내 국내배선, 노후되거나 불량인 콘센트, 차단기, 분전반과 전등 등을 교체하여 화재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와 안전검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전통시장 화재의 대부분이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데다 화재 시 밀집된 시장 특성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번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통해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